

안전감시단이 없는 현장 안전은 스스로 지키는 것

대림산업 산본2차 e-편한세상

아침부터 차가워진 기온에 가로수 낙엽은 하나 둘 거리를 뒹굴고, 도시를 휘감고 지나가는 바람에 어깨가 절로 움츠려 진다. 해는 어느새 서산으로 향하고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매달고 찾은 곳은 대림산업 산본 2차 e-편한세상 현장(장지안 소장)이다. 준공을 앞두고 마감공사가 한창인 이 곳 현장은 멀리서도 대림산업의 현장임을 알 수 있을 만큼 외관이 뛰어나다. 아파트 디자인은 의장 등록할 만큼 예뻐며, 타상형의 고층 아파트인 이곳은 산본의 명물로 탄생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현장 입구에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경비 아저씨가 나에게 안전모를 건넸다. 지난 7년을 넘게 현장을 찾아 취재를 했지만 현장입구에서 안전모를 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안전을 위해 당연한 행동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일상의 모습인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근로자 가정의 행복 지킴이 ■■■

현장에서의 안전은 99% 잘 해 놓고도 1%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 사고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하기에 안전을 두고 잘한다고 장담하지 않는 법이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곳 산본 2차 e-편한세상 현장이 그렇다. 올 겨울만 지나면 사실상 시공이 끝나는 이곳, 차근차근 진행되는 마감공사 공정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직원들은 더욱 분주히 움직인다.

가정의 행복 그 중심에 근로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지안 소장을 비롯한 이 곳 사람들은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독려하고 있다.

안전감시단 없는 현장 ■■■

현장의 안전은 안전관리를 비롯한 각 공정마다 안전감시단을 두어 현



▲ 정 지 안 현장소장

장의 안전시설에서 불안전요소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곳 현장에는 안전감시단이 없다.

이에 배성환 안전관리자는 안전감시단 운영은 강제성도 띄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안전감시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현장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켜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현장 사람들과 가까워지면서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안전감시단을 운영하지 않는 데에는 협력사와 직원들이 함께 발로 뛰며 안전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을 시킨다면 일시적으로 안전할 수 있겠지만 그건 오히려 위험 요소를 숨기고 있는 것과 같아 더욱 위험하다. 현장은 협력사의 관리감독자가 주축이 되어 형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전이다.

따라서 산본 2차 e-편한세상 현장은 직원들과 협력사 관리감독자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안전감시단인 것이다.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매일 아침 9시에 모든 협력업체 소장 및 안전관리자가 모여 안전회의를 하는 협의체 활동이다. 매일 전날 현장점검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자리, 당연히 시정 정도도 빠르고 크다.

선진안전국 기원 ■■■

처음 건설현장에 발을 내딛었을 때부터 해외현장을 경험해 본 정지안 소장은 일찌감치 선진 안전을 접해서 그런지 안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우리나라가 선진 안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해답을 제시해 준다.

지금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는 단위 현장별로 무재해를 위해 매진할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국한된 것이고,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대기업 현장에 근무할 때에는 안전을 지키지만 지방업체나 작은 현장에만 가면 안전을 버린다는 것이 정지안 소장의 생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에 대한 데이터가 네트워크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정부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모적이고 관리적인 안전관리가 아니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뿌리 내릴 수 있다고 한다.

준공 그날까지 한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

준공하는 그날까지 작은 사고 하나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겨울을 중요한 기간으로 여기고 집중관리한다는 것이 이곳 현장의 계획이다. 난방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표를 배포하여 출·퇴근할 때 점검토록 할 예정이며 군포소방서와 함께 대피훈련과 소방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마감공사 때는 전기 공급 휴대용 공구를 많이 사용하면서 근로자가 감전 위험 등에 노출된다. 이에 처음 가지고 들어온 공구는 테스트하고, 전선 등의 확인을 필한 공구만이 현장에서 반입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본의 명물 e-편한세상을 안전한 아파트로 탄생시키기 위해 직원과 현장근로자들은 하나가 되어간다. 

〈최종덕 기자〉